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5.11

## 나스닥, 물가 안정과 아마존에 이은 장 후반 알파벳의 힘으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물가 안정과 함께 장 후반 알파벳 급등으로 나스닥 상승 확대

•미 증시는 양호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국제 금리가 급락하자 기술주 및 지역 은행주가 상승 주도하며 강세 출발. 그렇지만, 소비지출 감소 소식으로 경기 침체 이슈가 유입되자 총당금 증가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급등하던 은행주가 하락 전환하며 주식시장은 부담. 그러나 오후에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 내용 발표로 알파벳(+4.10%)이 급등하며 시장은 재차 반등. 특히 수익 추정치 상승에 따른 아마존(+3.35%)의 급등에 알파벳까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의 상승이 컸음(다우 -0.09%, 나스닥 +1.04%, S&P500 +0.45%, 러셀2000 +0.56%)

### 특징 종목: 알파벳, 아마존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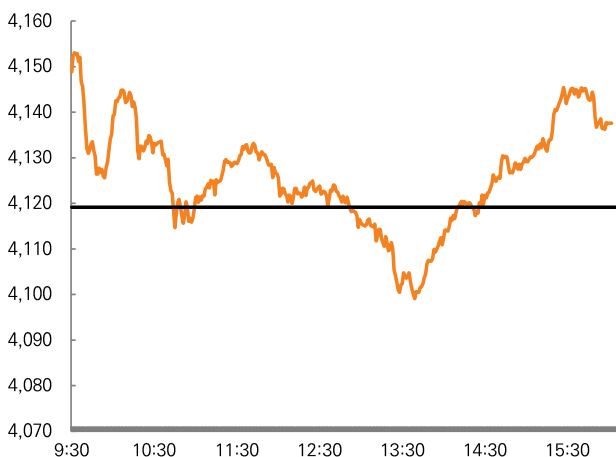
•알파벳(+4.10%)은 Gmail용 AI 작성 도구와 검색에 AI를 도입하는 등 AI를 여러 부문에 접목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발표 등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급등. 이는 AI 산업의 확대를 의미해 경쟁 업체인 MS(+1.73%)는 물론, 엔비디아(+1.10%), AMD(+2.06%), 팔란티어(+4.08%)등도 동반 상승. 아마존(+3.35%)은 최근 투자 회사들이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로블록스(+7.41%)는 예상보다 큰 손실에도 활성 유저수가 전년대비 22%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원화 강세 기대 속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0.13%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0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6.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장 후반 알파벳의 급등에 힘입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던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불어 미국 물가 안정이 진행되며 최근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줬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점도 전반적인 투자심리에 긍정적. 물론, 미국의 소비지출 둔화 우려가 높아져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은 상존하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도 부담. 그렇지만, 미국 물가 안정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는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일부 테마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국인 수급에 따른 변화가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96.51	-0.54	상해종합	3,319.15	-1.15
KOSDAQ	829.74	-0.73	홍콩항셱	19,762.20	-0.53
DOW	33,531.33	-0.09	베트남	1,058.26	+0.43
NASDAQ	12,306.44	+1.04	유로스톡스 50	4,306.76	-0.38
S&P 500	4,137.64	+0.45	영국	7,741.33	-0.29
캐나다	20,499.31	-0.42	독일	15,896.23	-0.37
일본	29,122.18	-0.41	프랑스	7,361.20	-0.4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변화 요인

## ① 소비자물가지수 ② 소비 감소 ③ 알파벳 급등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지난달 발표된 0.1%를 상회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5.0%에서 4.9%로 상승폭 둔화.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가솔린이 전월 대비 3.0% 상승했으나, 연료유가 전월 대비 4.5% 하락하고 가스 서비스도 4.9% 하락하며 에너지 품목 전체로는 전월 대비 0.6% 상승에 그침. 연료유 하락으로 항공 운임은 전월 대비 2.6% 하락해 교통 서비스 부문이 전월 대비 1.4% 상승에서 -0.2%로 하락 전환.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가운데 전년 대비로는 5.5% 상승해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에 그쳐, 2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8.2%에서 8.1%로 상승폭 둔화. 중고차는 전월 대비 4.4% 상승하며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6.6% 하락. 신차가 전월 대비 0.2% 하락해 하락 전환.

대체로 가솔린과 중고차 가격 등 일부 품목의 상승으로 물가지수가 지난달 둔화를 뒤로하고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그 외 품목들이 안정을 보이며 물가 상승 둔화가 진행되자 장 초반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국채 가격 급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한 지역은행들이 이를 주도. 더불어 CME FedWatch는 6월 금리인상 확률에 대해 전일 21%에서 1%로 크게 하향 조정.

한편,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BOA는 4월 카드 지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된 것인데 대체로 더 느린 성장과 높은 물가로 인해 필수품 중심으로 매출이 많은 저소득층 소비는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소비는 감소. 이는 향후 소비 둔화 가능성을 높였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을 자극. 관련 소식이 발표된 이후 주식시장은 장 초반 상승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 물가지표의 안정에도 소비 둔화를 이유로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등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그러나 오후 들어 시장은 다시금 반등했고 이는 알파벳(+4.10%) 상승의 영향. 장 초반 물가 안정에 따른 국채 금리 급락에 힘입어 소폭 상승 출발했던 알파벳은 오후 들어 급등세로 전환. 이는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의 기조연설에 힘입은 결과로 추정. 이날 구글은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인 Pal M 2를 발표했고, Gmail용 새로운 AI 작성 도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Bard, 또 검색에 있어서의 AI 도입 등을 발표. 여기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신제품도 공개. 관련 기조 연설이 진행되자 시장은 환호하며 알파벳은 4% 넘게 급등.



## 알파벳, 아마존 급등

알파벳(+4.10%)은 Gmail용 AI 작성 도구를 발표하고 검색에 AI를 도입하는 등 AI를 여러 부문에 접목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스마트폰과 태블릿 발표 등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급등. 이는 AI 산업의 확대를 의미해 경쟁 업체인 MS(+1.73%)는 물론, 엔비디아(+1.10%), AMD(+2.06%), 팔란티어(+4.08%), C3.AI(+1.51%) 등도 동반 상승. 아마존(+3.35%)은 최근 연속적으로 투자회사들이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강세.

로블록스(+7.41%)는 예상보다 큰 손실에도 활성 유저수가 전년대비 22%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 리비안(+1.80%)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 목표 달성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한 때 14%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으나 매물 출회되며 상승 반납. 에어비앤비(-10.92%)는 견고한 실적에도 예약 숙박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에 급락. 디즈니(-1.02%)는 구독자수 감소로 시간 외 하락

장 초반 국채 금리 급락에 힘입어 8% 넘게 상승하기도 했던 팩웨스트뱅크(-0.49%)와 6% 가까이 상승했던 웨스턴얼라이언스(+1.97%), 3% 가까이 상승하던 코메리카(-3.44%) 등 지역은행들이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 축소.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총당금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비용 증가 등으로 비관적인 실적 전망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JP모건(+0.05%), BOA(-1.23%) 등 대형 은행들도 동반 부진. 다만,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퍼스트 시티즌스(+7.45%)는 1분기 약 95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발표하자 급등.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57	대형 가치주 ETF (IVE)	+0.18
클린테크 ETF (CTEC)	+0.21	중형 가치주 ETF (IWS)	-0.11
소매업체 ETF (XLY)	+0.51	소형 가치주 ETF (IWN)	+0.25
온라인소매 ETF (EBIZ)	+0.52	대형 성장주 ETF (VUG)	+1.05
미국 인프라 ETF (PAVE)	-0.54	중형 성장주 ETF (IWP)	+0.51
핀테크 ETF (FINX)	+0.27	소형 성장주 ETF (IWO)	+0.8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85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30
클라우드 ETF (CLOU)	+1.25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25
사이버보안 ETF (BUG)	+2.39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14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1	미국 국채 ETF (IEF)	+0.7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40	하이일드 ETF (JNK)	+0.59
바이오섹터 ETF (IBB)	+0.33	신흥국 채권 ETF (EMBD)	+0.42
로봇&AI ETF (BOTZ)	+1.15	물가연동채 ETF (TIP)	+0.33
반도체 ETF (SMH)	+0.8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79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커뮤니케이션	198.56	+1.69	+2.17	+2.01
IT	2,674.99	+1.22	+2.56	+2.69
부동산	234.50	+0.98	+2.35	+0.17
유틸리티	351.86	+0.94	+1.82	-0.61
경기소비재	1,159.34	+0.63	+2.25	+2.20
헬스케어	1,546.86	+0.27	-0.53	-0.64
소재	495.59	+0.05	-0.18	-1.66
필수소비재	798.32	-0.15	-0.08	+1.39
산업재	837.56	-0.32	-0.13	+0.28
금융	532.36	-0.67	+0.27	-0.17
에너지	610.73	-1.15	+0.55	-7.2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원화 강세 기대 속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0.13%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0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6.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상승. KOSPI는 0.3%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유입되며 하락.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2차 전자 업종의 하락이 지속되며 지수 하락을 부추김. 한편, 자동차와 화장품 등 일부 업종은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도 진행. 결국 KOSPI는 0.54%, KOSDAQ은 0.73%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장 후반 알파벳의 급등에 힘입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던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불어 미국 물가 안정이 진행되며 최근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줬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점도 전반적인 투자심리에 긍정적. 여기에 마이크로니 약세를 보였으나 ASML을 비롯해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알파벳의 힘으로 여타 반도체 업종이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00% 강세를 보인 점도 우호적.

물론, 미국의 소비지출 둔화 우려가 높아져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은 상존하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도 부담. 그렇지만, 미 증시가 이보다 개별 기업들의 상승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투자심리가 양호한 점은 긍정적. 특히 미국 물가 안정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는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일부 테마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국인 수급에 따른 변화가 예상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물가 안정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상승보다 증가한 0.4%로 발표됐으나 예상과 부합.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5.0%보다 소폭 둔화된 4.9%로 발표돼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지난달 발표에서 변하지 않음. 전년 대비로는 5.6%에서 5.5%로 둔화됐으나 예상과 부합.

미국 지난 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 발표된 1.2% 감소에서 6.3% 증가로 전환. 재 신청 건수는 0.8%에서 10.0%로 크게 증가.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에서 2.9%로 증가.



## 국채 금리, 물가 안정으로 큰 폭으로 하락

국제유가는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 둔화 우려가 확대되자 향후 수요 감소 가능성에 주목하며 하락. 더불어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가 높지만, 이러한 소비 둔화는 예상보다 드라이빙 시즌 수요 둔화 가능성을 높인 점도 부담.

달러화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우려와 달리 안정을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유로화는 ECB 위원들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지자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폭이 컸음.

국채금리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려와 달리 안정을 보이자 큰 폭으로 하락. 특히 CME FedWatch에 따르면 6월 금리인상 확률이 전일 21%에서 물가 지표 발표 후 1%로 낮아져 금리 동결이 확실시된다는 점도 단기물 중심의 급락 요인. 한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41배를 상회한 2.45배, 간접입찰도 64.8%를 상회한 67.5%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아진 점도 금리 하락 요인. 또한 소비지출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영향.

금은 물가 안정에 따른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대되자 하락. 다만, 달러 약세 및 금리 급락에 힘입어 낙폭은 제한.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며 하락. 곡물은 옥수수가 수급적인 요인에 힘입어 상승. 대두는 주요 작황지 날씨가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날씨 영향으로 하락. 밀은 터키가 흑해를 통한 곡물 운송 협정에 대해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21%, 철근은 2.16%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56	-1.21	+6.15	Dollar Index	101.437	-0.17	+0.09
브렌트유	76.41	-1.01	+5.99	EUR/USD	1.0984	+0.20	-0.71
천연가스	2.19	-3.88	+0.41	USD/JPY	134.35	-0.65	-0.27
금	2,037.10	-0.23	+0.06	GBP/USD	1.2626	+0.04	+0.49
은	25.66	-1.03	-0.20	USD/CHF	0.8895	-0.11	+0.62
알루미늄	2,268.00	-2.24	-4.16	AUD/USD	0.6779	+0.25	+1.62
전기동	8,475.00	-1.36	-0.46	USD/CAD	1.3373	-0.08	-1.78
아연	2,623.50	-1.89	+0.54	USD/RUB	76.1750	-1.91	-2.67
옥수수	594.00	+1.41	+0.76	USD/BRL	4.9462	-0.81	-0.97
밀	641.25	-0.54	+0.04	USD/CNH	6.9380	+0.19	+0.23
대두	1,404.00	-0.72	-0.95	USD/KRW	1,324.80	+0.07	-1.29
커피	185.95	-0.29	+0.24	USD/KRW NDF1M	1,316.15	-0.60	-1.2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35	-8.35	+9.95	스페인	3.371	-6.80	+5.60
한국	3.335	+1.50	+1.80	포르투갈	3.121	-7.70	+3.20
일본	0.425	-0.10	+0.40	그리스	4.085	-4.70	-0.90
독일	2.288	-6.20	+4.10	이탈리아	4.201	-7.80	+8.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